

# CARE BUILDING CARE EVERYTHING



앞으로의 건물은 외부, 내부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건물 자체에서 비상벨을 울려 주변 사람들과 차량에 위급상황을 알려서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나 외부 사람 때문에 구급차의 진입이 막히지 않게 하여 우리를 지킬 것이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체온, 건강 상태에 맞게 온습도를 조절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내조경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모든 것을 건물에서 케어해 줄 수 있다.